여운과 틈새의 미학 만드는 카메라의 시점

롯데칠성의 '레쓰비' 광고

마정미 | 광고평론가

최근 하나의 주제나 상품을 여러 개의 광고로 만들어 내보내는 멀티스팟 광고가 자주 등장하고 있다. 그 가운데 연기자들의 내면연기를 이끌어내는 기법으로 주목받고 있는 광고가 있다. 신세대의 애정풍속도를 그린 롯데칠성의 '레쓰비' 광고가 그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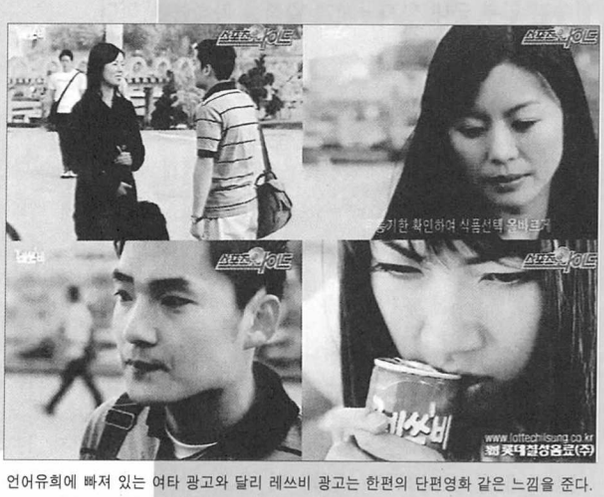
30대의 독신 여교수와 여대생이 한 남학생을 사이에 두고 삼각관계에 빠졌다. '커피 스캔들'이란 타이틀을 붙인 롯데칠성 캔커피 레쓰비의 CF 스토리다. 여교수역의 진희경은 캠퍼스를 걷다가 제자 김정현을 만난다. "정현이구나." 반기는 진희경에게 김정현은 머뭇거리며 "저 교수님, 오늘 저녁에 저랑 어디 좀 가실 수 있으세요?"라고 어렵사리 말을 꺼낸다. 그러나 대답을 듣기도 전에 동급생 김윤경이 달려와 "정현아 여기서 뭐해, 애가 정신을 어디다 파는 거야"라며 끌고 간다. 어색해진 세 사람은 각자 제 갈 길로 가고 독백만이 남는다. "사랑한다고 말해봐요" "그건 사랑이 아닐 거야" "널 뺏길 순 없어"라고. 외로운 사랑을 앓고 있는 이들에게 위안을 주는 것은 당연하게도 상품인 레쓰비 캔커피다.

멀티스팟 기법으로 파격적인 사랑 그려

삼각관계에 놓인 세 사람의 시점을 각각 따로 담은 이 레쓰비 광고는 세편으로 제작, 전파를 타고 있다. 하나의 주제, 혹은 하나의 상품을 여러 개의 광고로 만들어 동시에 내보내는 멀티스팟 광고다. 이런 종류의 멀티스팟 광고에는 '다채널 인터넷 방송국' 두밥의 광고가 있다. 인기 시트콤 〈세 친구〉의 주인공들이 등장해서 '생(生) 동(動) 낙(樂)'이란 세 가지 키워드를 "잼이 있다(재미있다)" "신이 난다(신난다)" "홍콩 간다"라는 세편의 광고로 보여준다. 인터파크와 다음 커뮤니케이션 광고도 다양한 네티즌을 공략하기 위해 멀티스팟 광고를 활용하고 있다.

언어유희에 빠져 있는 다른 광고들과 달리 레쓰비 광고는 한편의 단편영화 같은 느낌을 준다. 스토리 자체는 진부한 삼각관계지만 연상의 여성과 연하의 남성, 스승과 제자라는 측면에서 파격적인 사랑 풍속도기도 하다. 사랑한다면 국경도, 나이도 전혀 문제삼지 않는다는 신세대적인 가치관을 반영하는 것이다. 물론 그럼에도 제목이 로맨스가 아니라 스캔들인 것은, 광고란 어차피 사회의 통념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스테레오타입이기 때문이다.

이 광고의 특이점은 광고의 내용보다 영상언어에 있다. 현란한 이미지, 요란한 음악이나 동작은 없지만 내면의 연기가 돋보이는 것은 여운과 틈새 때문인데, 이 여운과 틈새는 카메라 시점과 앵글에서 연유한다. 이 광고 세편은 동일한 장소에서 촬영했지만 카메라 시점이 모두 다르다. '김정현편'에서는 멀리서 다가오는 진희경만이 클로즈업된다. '진희경편'에서는 반대로 김정현만이 비춘다. 다시 말해 카메라는 주인공의 시선과 시점이 일치돼 있어 주인공이 보는 상대, 즉 욕망의 대상을 보여준다. 카메라와 관객의 시점이 일치돼 연기가 좀더 내밀하게 보인다. 숏(shot)과 역 숏(reverse shot)을 빈번하게 사용해 친밀감을 연출하는 TV문법이 아니라 영상간의 봉합(suture)을 염두에 둔 영화문법이다.



언어유희에 빠져 있는 여타 광고와 달리 레쓰비 광고는 한편의 단편영화 같은 느낌을 준다. 스토리 자체는 진부한 삼각관계지만 당사자들의 관계가 스승과 제자라는 점에서 파격적인 애정풍속도다. 그러나 이들의 사랑을 가리켜 로맨스라 하지 않고 스캔들이라 한 것은, 사회적 통념의 벽을 넘어설 수 없는 광고의 한계를 드러내는 한 예가 된다.

"사건은 존재하나 진실은 없다"

이런 멀티스팟 기법은 영상뿐 아니라 문학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윤영수의 소설집 《착한 사람 문성현》(창작과비평사)을 보면 〈벌판에 선 여자〉 〈해묵은 포도주〉 〈알몸과 누드〉라는 각각 별개의 소설이 연작을 이룬다.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우연히 부딪치는 세 사람의 각기 다른 인생이 펼쳐진다. 작품의 출발 시점은 열두시 사십칠분, 백화점 로비다. 저마다 녹록치 않은 삶의 무게를 담고 있는 이 소설의 주인공들은 은성한 도심 한복판 백화점에서 욕망과 소외를 곱씹는다. 물론 이들의 원전은 구로자와 아키라 감독이 영화화하기도 했던 아쿠타가와 류노스케의 소설 《라쇼몽(羅生門)》(범우사)에서도 찾을 수 있다. 라쇼몽에서 벌어진 사건에 대한 목격자들의 각기 다른 시각, 다른 진술을 보여주는 이 작품은 증언자들의 어긋나는 진술을 통해, 박완서의 소설 제목처럼 '지알고 내알고 하늘이 알 건만', 진실은 아무도 알 수 없는 미궁으로 빠진다. '사건'은 존재하지만 진실은 없다. 진실의 주관성과 상대성만이 있을 뿐이다.●